

수재 사찰·군법당 복구 '뒷전'

김근면

인 홍국사의 진가를 떨어뜨릴 정도다. 홍국사 주지 화법스님은 "수재이후 계속된 초하루 약사재일 칠월칠석법회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일손의 절대부족으로 복구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불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국사는 불자들의 외지 자원봉사활동

교계 의연금 주민돕기에 집중

"이제 '부처님 집'에도 관심을"



◇일손과 장비의 절대부족으로 수해를 입은 불교계 시설의 완전복구는 한 달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성각 지붕이 내려앉은 홍국사 22일 현장. <남영주=고영배 기자>

사람과 차가 오가던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범벅이 되어버린 홍국사 앞길에는 진입로를 뚫느라 서너명의 스님들이 북에 두른 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흘려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쓸새없이 흙을 치우고 땅을 다지고 있다. 수마가 홍국사를 합류고 간지 한달이 다 되어가지만 완전복구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해는 군경철의 지원인력과 장비,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수재지역이 차츰 제모습을 찾아 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불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제25교구 봉선사(주지 화법)는 이제 겨우 유실됐던 사찰진입로를 사람과 소형차가 오갈수 있을 정도로 닦아 놓았을뿐 집중호우에 지붕기와 1/3정도로 떨어져나가 붕괴위기에 있는 특성각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무너져내린 특성각 지붕에 비가 더 이상 새어들지 않도록 얼마전 몇 안되는 스님과 종무원들이 비닐을 씌워 놓았을 뿐이다. 홍한 그 모양새는 유서깊은 주련과 편액, 불보살상 등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성보문화재가 많은 전통사찰

요즈음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굴러온 돌이 박힌를 뺀다'는 속담을 실감하고 있다. 70년대, 봉은사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세운 무역협회가 봉은사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초고층빌딩을 건립하려 하기 때문이다. <본보 6월12일자 보도>

봉은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협이 계획중인 아셈(ASEM)행사장은 봉은사 코앞에 세우는 대형건물群으로 천년고찰의 조망권과 환경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건물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협이 구상중인 아셈행사장은 조선명

로 '무역협회 고층건물신축반대 봉은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호정)'를 결성하고 각계에 홍보하는등 향후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책위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여론형성을 위해 환경, 교통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앞서 대책위는 또한 지난 20일 철석법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아셈회의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무협의 대규모건물신축 반대 △정통문화재훼손과 수행환경파괴하는 무협계획 철회 △주민

"대사회 보살행퍼는 조직으로"

변화조직 보이는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가 지난 21~23일 경주에서 열린 하계수련대회에서 박완일씨(14~16대 회장역임)를 제18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계기로 변화의 조직을 보이고 있다.

전신회는 지난 5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7인합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에 회장선출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회장, 중앙운영위원 등 106명이 참석했다. 박완일회장 취임법회는 9월중순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련대회는 '21세기 불교환경' '불교에서 본 가정교육'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한 강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도운동의 발전된 내일을 위한 제언'과 이를 토대로 한 토론이었다.

손안식 사무총장은 '제언'을 통해 전국신도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앙일변도의 조직운영, 특징적인 의존한 재정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신도회화중 동 또한 통일 환경운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계종총무원이 전국신도회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 창립을 준비하는 등 내외적으로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전국신도회는 그동안 조계종의 유일한 전국조직이란 외명인 내부의 허실을 드러냈으며, 내부의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체된 조직으로 평가됐다. 또 94년 당시 회장이었던 조기현씨가 상무대리 사건으로 구속되며 도덕성을 결핍한 조직이라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토론주제로 상정할 것 자체가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통일과 환경운동을 주요사업내용으로 제시한 대목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법당안에서의 기원만으로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것은 소극적 실천'이었다고 평가하고 "실재하는 고통의 현상으로 뛰어드는 보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속에서 불교가 어떠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천을 어느 정도 해냈느냐에 달려있다는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체질화된 중앙 또는 1인 중심의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것인지, 또 사회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전신회가 이같은 선언으로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정성운 기자

봉은사, 아셈건물 신축반대 대책위 가동

"천년고찰 환경권 사수 결의"

강남구청 "구민합의 있어야 허가" 표명

종대 승과고시가 부활된 '승과평(僧科坪)' 자리 2만3천여평으로 정상회의장동 5층규모의 컨벤션홀 및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봉은사가 반발하는 것은 행사장 부대시설로 36, 45층 업무용빌딩 2개와 23층 특급호텔, 쇼핑센터등 초고층빌딩群. 이 고층건물들은 봉은사 일주문에서 도로(왕복6차선·폭30m)하나 거리를 두고 세워지게 되어 수행과 기도도량으로서 면모를 잃을뿐 아니라 천년고찰의 존폐까지 우려된다.

이러한 위기감속에 봉은사는 지난 17일 대중스님,신도회,각신행단체장을 주축으

생활환경위협하는 대규모건물신축계획이전을 요구했다.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은 "아셈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부대시설 신축을 막고자한다"며 "무협측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10만신도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용문 강남구청장은 "봉은사와 지역주민의 합의가 있기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아셈행사 부대시설 건축여부를 놓고 무협과 봉은사, 지역주민간의 대립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준엽 기자

시론

효도는 으뜸 복밭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도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도리는 다름아닌 인륜이다. 사람의 도리를 하는 가장 기본이 효도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는 백가지 선(善)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였고 만 가지 복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사람다운 도리의 기본

사람이 태어난 뿌리가 어버이인데 그 어버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능멸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셈이다. 그래서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서 효의 가르침을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효란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지나온 삼십여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잘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풍속도이다.

옛것을 재빠르게 벗어던지고 새것을 받아들이면서 영악스러움만 남고 욕망에 급급하였다. 그리고 보니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삶의 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인류적 측면에서는 나 잘 살기 위하여 부모도 외면하는 노릇은 씌어야 할 업보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인연 가운데 제일 소중한게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이다. 그것은 천륜이다. 그러나 그 인연에는 착한 인연, 악한 인연, 소중한 인연, 원수 같은 인연 그렇게 가지가지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태어난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다면 그것 또한 서툴러 정신차려야 할 일이다. 만약 인연의 무게가 적다면 그것을 원망할게 아니라 더 무겁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인연의 힘이 모자라면 힘이 있도록 공을 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효 사상을 강조한 부분이 많다. <부모은중경>이 그 대표적 예가 되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해설하였다.

하나의 목숨이 생성되면서 은혜로움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태중에 배고 있는 동안의 은혜, 해산할 때 크나큰 고통을 겪는 은혜, 자식을 낳았다고 즐거워하는 은혜, 나쁜것은 주지않고 좋은것만 주는 은혜, 젖은 자리 피하고 따뜻한 자리 마련해주는 은혜, 젖먹여 길러 주신 은혜, 대소변 가려 주신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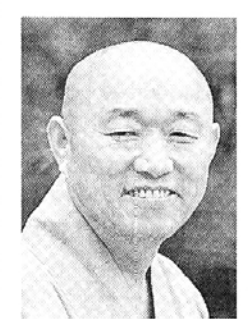
있는게 아니고 다음생 그 다음생에도 이어지므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부모자식간의 좋은 인연은 더 좋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하지만 만약 좋지 않은 인연은 좋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 숭순수범 큰교육

둘째는 자기가 부모에 효도를 실천하므로써 자식들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가운데 인성교육의 가장 으뜸인 부모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배게하는 표본이다.

셋째는 효를 가르치는 방법의 하나인 육아일기를 써서 아이가 자라고 나서 읽도록 재산 일호로 전해주어야 한다. 자식 키우며 즐겁고 괴로운 일, 정신적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적어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

효도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해야 할 의무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보람스런 일을 효도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면 그 이상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효도하는 삶은 고귀한 것이요, 멋진 삶이다.



석성우 <스님·피계사 주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1. 대회명
「韓·中·日 佛教友好交流會議 서울大會」

2. 대회주제
「21世紀에 있어서의 韓·中·日 佛教의 使命」

3. 일시
1996년 9월 9일 ~ 12일(3박4일)

4. 장소
서울 세라톤위커퉴 호텔 ☎(02)453-0121

5. 개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고승대덕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과거 삼국 불교 우호교류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에 있어서의 삼국 불교의 사명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안민구제, 환경보호, 학술, 문화, 정보교류 등 제반 실천사항을 가지고 삼국불교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따른 논의와 결정을 하는 3국 불교계 최고 대표 회의입니다. 본 대회는 국제 회의와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6. 취지
오랜 역사를 이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과거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문화 교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고승들의 구도 행각과 포교, 사상 교류와 전파, 불경과 문물 등 불교의 인적, 물적 교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불교의 우수한 문화와 제도 등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라 원효 등 헤아릴 수 없는 고승대덕들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불교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교환적이며 보완적인 우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국 불교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국 불교계는 95년 5월 중국 북경에서 1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대회시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서한 주석의 만찬,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예방, 개·폐회식에서의 중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참석, 중국·일본 각계 유명 인사들의 축진등은 앞으로 삼국 불교계 우대와 우호교류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대회에서도 한·중·일 불교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삼국 유력 종단의 총무원장, 종진대덕 각 단체장 등 실질적 최고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21세기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의 구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수반되는 사업인 난민구제, 지구온 환경보존,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치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문화 질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7. 대회일정

일시	행사내용	장소	비고
9월 9일	12:00-15:00 중국, 일본대표단 입국 15:00-16:00 대표단 등록 16:00-17:00 3국불교 준비위 실무회의 18:00-20:00 대표단 환영만찬	김포공항 세라톤위커퉴호텔 소회의실 벤를라워 룸	400여명 회의장 30명 200여명
9월 10일	10:00-12:00 개회식-축하예술공연 12:00-14:00 오찬-문체부장관 주재 14:00-18:00 기조연설-한,중,일 대표 보충연설-각국 2명씩 18:00-20:00 대회환영만찬 (한중일 참관단 전원 참석)	무궁화그랜드룸 벤를라워 룸 무궁화그랜드룸	1,000명
9월 11일	10:00-12:00 세계평화기원법회 (영산대제 형식으로 진행) 12:00-14:00 오찬-동국대 총장 주재 14:00-16:00 회의(보충연설) 각국명씩 16:00-18:00 폐회식(선언문 채택)	동국대 운동장 동대 학술문화관 무궁화그랜드룸 무궁화그랜드룸	2,000명 대표단 800명
9월 12일	10:00-12:00 불교문화대제전 참관 13:00-16:00 일본 대표단 출국	여의도 행사장	중국대표단은 13일 출국